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확정 의미

산·학·연 ‘삼박자’로 소재 국산화 이끌 경쟁력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지 조성이 확정된 것은 이미 탄소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인력양성기관이 집적화된 전주시가 더욱 탄탄해진 탄소 인프라를 토대로 소재국산화를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산·학·연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탄소 인프라를 토대로 전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주지역 탄소관련 기업은 대한민국 대표 탄소기업인 효성첨단소재(주)를 비롯한 총 97개사로, 탄소섬유와 탄소 복합재 관련기업이 전체의 81.4%(79

효성첨단소재 비롯 총 97개사 탄소섬유·복합재 관련 기업 79개사 차지

소재 국가산단 조성시 70여개 기업 추가 입주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

복합기술지원동 등 연구기관들도 많아·도내 대학들도 인재육성 박차

개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소재 국가산단단지가 조성되면 대한민국 소재산업을 선도할 탄소관련 기업체 등 약 70여개 기업이 추가 입주함으로써 탄소섬유 생산부터 탄소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전주는 국내 최초의 탄소소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연구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자동차기술원 탄소융복합연구실, 전북테크노파크 등 탄소관련 연구기관들도 많다.

특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경우 △복합기술지원동 △시험생산동 △벤처1동 △벤처2동 △R&D직접활동

△신소재성형동 △초경량대형박육부품시험생산동 △복합재시험생산동 △고기능복합섬유원천소재동 △국제탄소연구소 △기계벤처동 △융복합부품실용화센터 △첨업보육센터 △탄소기술교육센터 △신상품개발지원센터 △탄소복합재상용화기술센터 등을 갖추고, 탄소관련 R&D(연구개발)부터 시제품생산, 인력양성 등의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향후 조성될 탄소국가산단에는 10여개의 R&D(연구개발)시설과 20여개의 지원시설이 추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연구기관 집적화도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전북지역 대학들도 탄소산업 발전과 소재국산화를 이룰 탄소인재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보육센터와 탄소기술교육센터 외에도 전북대 유가소과이머공학과와 고분자나노공학과, 원광대 탄소융합공학과, 전주대 탄소나노신소재공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시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향후에

도 탄소기업과 연구기관,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가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탄소산업이 이제는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소부터 소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인력양성을 책임질 대학과 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인프라를 모두 갖춘 탄소도시가 됐다”면서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대일 무역적자 해소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 이뤄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지역상권관리 정책 수립해야”

강승원 의원



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개발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 상권별 기초현황 분석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과 상권 특성에 맞는 탄력적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와 추진단 신설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행정안전부 골목경제활성화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되는 각각의 지역 상권관리 정책을 부서간 협력과 체계적 추진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내야 한다”고 협주어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동킥보드 안정성 확보 시급”

김은영 의원



연하, 인도나 자전거도로 주행은 불법이고 차도로 달리는 상황으로, 아직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로 위의 킥보드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정해진 주행 공간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주행안전기준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8월 인 현재까지도 진척이 없어 안전은 뒷전”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송효철 기자



개강 첫날 내리는 가을비 학생들로 교내가 북적이고 있다.

전주시 일대에 가을비가 내린 2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한

‘함께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전주시,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지구와 행복드림 결연

국제라이온스협회 전주시지부 40개 클럽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협회356-C(전북)지구 전주시지부 40개 클럽은 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김영천 지구총재와 결연클럽 회장 및 동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2020년도 전전전 행복드림 결연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013년 1월 민·

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간단체의 우수한 인력과 예산을 시장에 접목해 공평하고 누수 없는 봉사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전주시와 국제라이온스356-C지구가 협약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영천 국제라이온스356-C지구 총재는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소외계층과 불우이웃들을 위해 함께 나누겠다고 연 1억 3000만원의 결연사업예정액을 전달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11월 8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전주시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에 나섰다. 시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전주시민에게 유용한 앱·웹을 개발하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등 공공서비스 활용 우수사례를 모집하는 2019 전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촉진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모델을 발굴해 시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전주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앱·웹 개발과 아이디어 등으로, 학력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전주시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참가자는 반드시 전주시 공공데이터 포털(data.jonju.go.kr)을 통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며, 타 공모전 중복 시상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작, 대리작의 경우 공모심사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이며, 시는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거쳐 총 8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앱/웹 부문 스마트상(최우수) 1명 100만원, 으뜸상(우수) 2명 70만원, 노력상(장려) 2명 40만원 △아이디어 부문 스마트상(최우수) 1명 50만원, 으뜸상(우수) 1명 20만원, 노력상(장려) 1명 10만원의 상금 및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설공단, 빙상스포츠 신규 강습프로그램 개설

주 3회·5회 반 등 기존 강습반에 주 1회반 추가로

전주시설공단은 피겨와 스피드 스케이팅 등 빙상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신규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빙상경기장은 평일 주 3회, 5회 반 등 기존 강습반에 주 1회반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 바쁜 일상 때문에 주 3회 강습에 다 참여하지 못하는 강습생을 위해서다.

또 초보자만을 위한 기초반도 새로 운영한다. 기존에는 초보자를 위한 강습반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중급자와 함께 강습을 받아야 했다.

주 1회반은 평일과 주말, 개인강습 형태로 운영된다. 강습료는 평일반이 월 2만 원, 주말반이 월 6만 원, 개인강습이 월 10만 원이다.

개인강습은 최대 4명의 강습생이 함께 강습을 받는 형태로, 최대 15명의 강습생이 강습을 받는 평일·주말반에 비해 개인에 최적화된 강습이 가능하다.

평일 기초반은 다음 달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월·수·금요일 오후 5시 1개반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강습반을 추가로 개설해 나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가을 관광객 유치 ‘쟁걸음’

오늘 ‘서울 FIT 트래블마트’·5-8일 ‘부산국제관광전’에 잇따라 참가

외국인 개별관광객 등 대상 여행상품·비빔밥축제 등 축제상품 홍보

전주시가 올 가을 보다 많은 수도권·경상권 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주관광 홍보에 나섰다.

시는 3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열리는 2019 서울 FIT 트래블마트와 5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제22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잇따라 참가해 전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먼저 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인바운드 여행사 등이 참여하는

2019 서울 FIT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FIT(외국인 개별 관광객) 상품을 설명하고, 사계 공유 등을 통해 최신 FIT 여행 트렌드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트래블마트에서 여행 콘텐츠 운영 업체와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B2B 상담회를 통해 외국인 개별 관광객이 전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소개하고, 많은 여행사가 지속가능한 전주여행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부산광역시 주최하고 45개 국 430여 개 지자체와 관광업체가 참여하는 ‘제22회 부산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전주한옥마을과 전주 덕진공원 등 전주시 주요 관광 목적지와 2019 전주비빔밥축제 등 가을 대표 축제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국제관광전에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를 홍보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홍보관에 배치하고, 2019-2020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전주한옥마을과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전주덕진공원 등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 관광상담회도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특히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한옥마을 향교일대에서 열리는 2019년 전주비빔밥축제를 중점 홍보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들이 올 가을 ‘맛있는’ 전주여행을 즐기도록 유도하고,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로 했다.

동시에, 관광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주한옥마을 특화 관광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전북 4개 시·군을 연계한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 등 전주 관광상품을 안내하고, 효율적으로 전주를 여행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도 홍보하는 등 전주 관광객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경찰 100년사 발간 추진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경찰역사를 되짚어 보고 다가올 미래 100년의 등불을 밝힐 ‘군산 경찰 100년’ 서적 편찬을 추진한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임시정부 경찰 창설 100주년을 맞아 이와 함께 했던 군산경찰의 100년사에 대해 고찰 및 재정립하고 그간의 경찰의 부정적 인식을 벗고 국민만을 위한 경찰로 바로 서기 위해 역사 서적 편찬을 계획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경찰서는 편찬위원회 및 전담팀을 꾸려 지속적으로 내부 및 외부에서 군산경찰 역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연말 경 책자를 발간하고 유관기관, 협력단체 등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의 날 주간에 경찰서 2층 아트갤러리에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여 ‘비리보는 군산경찰 100년’을 군산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